2026년 1월 12일 충북 2026 – 3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목 : 충북지역 정주여건 평가 및 시사점

□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162개 시·군·구(수도권, 세종 제외)를 대상으로 「정주여건 지수」를 산출하여 충북지역의 정주여건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 임 : 충북지역 정주여건 평가 및 시사점 1부.

문의처 : 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김상미
Tel : 043-220-0591 Fax : 043-220-0596 E-mail : chungbuk@bok.or.kr

"한국은행 충북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 > 지역본부> 충북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충북지역 정주여건 평가 및 시사점[1)]

1.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정주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 나은 교육환경, 일자리 기회, 의료·문화·쇼핑·여가 인프라 등이 인구 순 유입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정주여건은 특정 지역에 정착하여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의미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단일지표로 평가하기 어렵다.

1.1. **본고에서는 충북의 정주여건을 평가하기 위해 16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정주여건 종합지수」를 만들었다.** 종합지수는 교육, 주거·교통, 문화·여가, 안전, 생활환경, 보건·복지, 임금·일자리 등 7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였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신생 도시인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산출 방법은 <참고1> 「정주여건 종합지수 산출 방법」을 참고하길 바란다.

참고1 **정주여건 종합지수 산출 방법**

1.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 중 정주여건과 관련된 21개 지표를 선별하고 여기에 2개 지표(신규주택 비율, 지식기반제조업 입지계수)를 추가하여 7개 부문 23개 지표를 이용하였다.**

정주여건 종합지수 산출 지표

부문	세부 지표
교육(3)	보육시설 근접성, 초등학교 근접성, 평생교육 인프라
주거·교통(3)	노후주택 비율, 대중교통 인프라, 신규주택 비율(추가 지표)
문화·여가(3)	공공도서관 접근성,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문화예산 비율
안전(3)	소방서 접근성, 경찰서 접근성, 지진 옥외대피소 접근성
생활환경(5)	하수도 보급률, 생활공원 접근성,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대기오염 배출량
보건·복지(3)	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병원 접근성
임금·일자리(3)	평균 임금, 종사자 수 증가율(최근 3년), 지식기반제조업 입지계수(추가 지표)

2. **선정된 각 지표를 표준화(Z-score)한 후 7개 부문 내 지표 간 주성분 분석(PCA)*을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부문별 지수를 산출하였다.** 주성분 분석 결과, 제1 주성분이 전체 변동의 40~8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관측 가능한 다양한 변수 간의 분산과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관측되지 않은 공통성분을 추출하는데 유용한 통계분석 방법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관적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종합지수 산출 시 가중치 산정을 위해 자주 활용된다.

3. **정주여건 종합지수는 부문별 지수를 단순평균하였다.** 본고에 제시된 종합지수는 해석상 편의를 위해 전국 평균(수도권, 세종 제외)이 '100'이 되도록 각 지수를 재조정한 값이다.

1) <작성자> 기획조사팀 과장 김상미(043-220-0591), <조언자> 팀장 김광민. 이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Ⅰ. 충북지역 정주여건 평가

(8개도 비교)

2. **충북지역 정주여건 종합지수(기준치 100(전국 평균<수도권, 세종 제외>), 이하 동일)는 97.8로 8개도* 중 3번째이다.** 제주, 충남, 충북, 경남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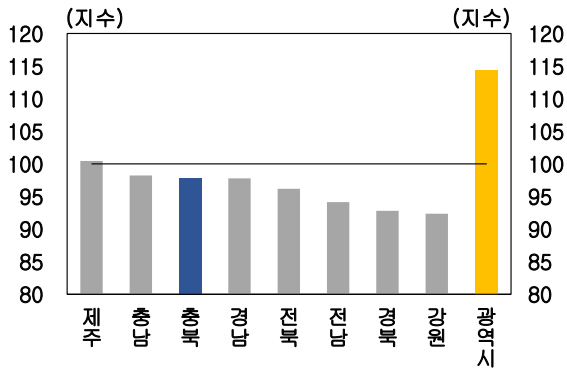
* 광역시와 도지역 간 종합지수 격차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본고에서는 8개도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참고2> 「광역시와 도지역 간 정주여건 비교」 참조).

2.1. 부문별로는 충북의 경우 임금·일자리 부문 순위가 8개도 중 1번째, 교육, 문화·여가 부문은 2번째, 주택·교통 부문은 3번째로 높았다*. 반면 **보건·복지 부문은 2번째, 안전 부문은 3번째로 낮았다.**

* 지역별로 상위 부문(8개도 중 1, 2번째)이 다소 상이하였다. 제주는 주택·교통, 문화·여가, 안전, 생활환경에서, 충남은 주택·교통, 임금·일자리, 경남은 교육, 보건·복지, 전북은 안전, 생활환경, 보건·복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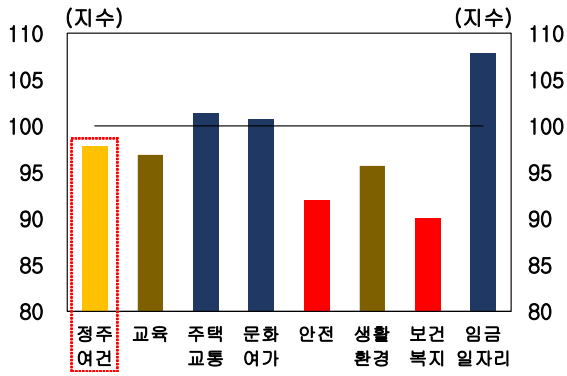
충북은 8개도 중 3번째로 높음

도지역 정주여건 종합지수



충북은 보건·복지, 안전 부문 지수가 낮음

충북지역 부문별 정주여건 지수



(도지역 대표 도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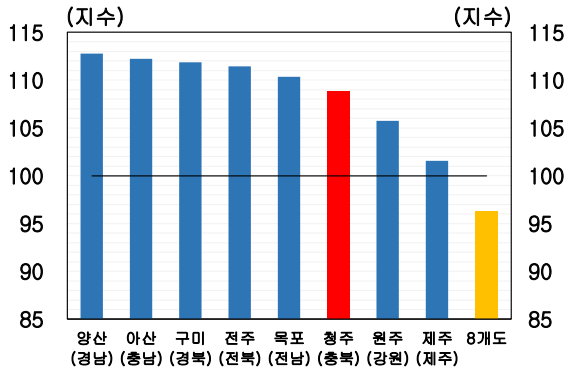
3. **충북 청주의 정주여건은 다른 지역 대표 도시(도지역 내 종합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에 비해서는 지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남 양산이 가장 높았으며 충남 아산, 경북 구미 등의 순으로, 충북 청주*는 8개도 대표 도시 중 6번째 순이었다.

* 광역시를 포함한 162개 시·군·구 중에서는 청주의 경우 47번째 순이었다. 대구 중구의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부산 강서구, 울산 남구 등이 뒤를 이었다.

3.1. 청주의 부문별 지수는 문화·여가(8개 대표 도시 중 2번째) 부문을 제외하고 대체로 8개 대표 도시 중 중~중하 정도의 순위를 보였다. **특히 안전, 생활 환경 부문의 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충북 청주는 8개도 대표 도시 중 6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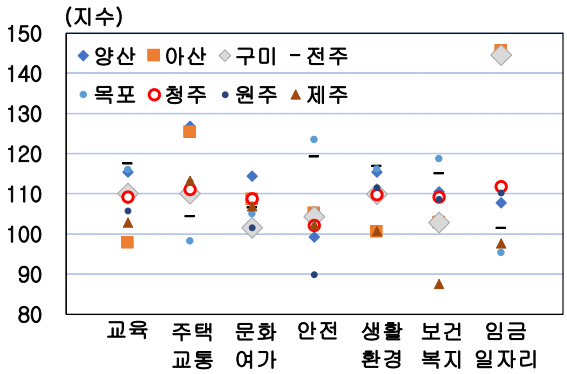
도지역 대표 도시[1] 정주여건 종합지수



주 : 1) 지역 내 시·군 중 종합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

청주는 부문별로 대체로 중간순위를 보임

도지역 부문별/대표 도시[1]별 종합지수



주 : 1) 지역 내 시·군 중 종합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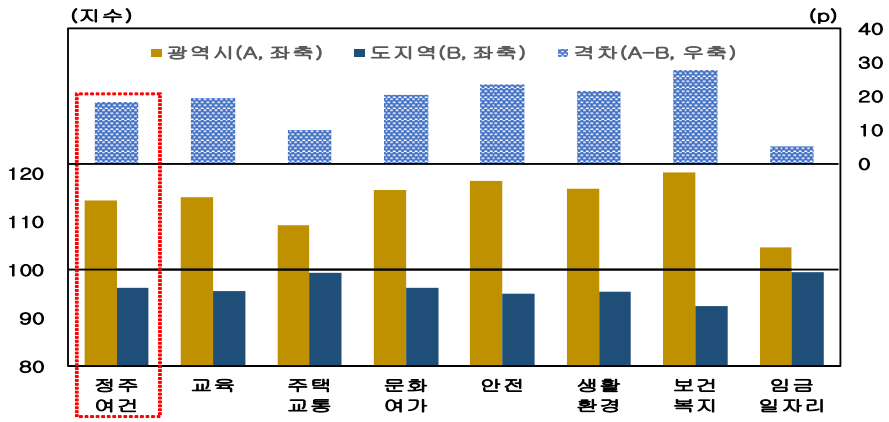
참고2 **광역시와 도지역 간 정주여건 비교**

1. **광역시와 도지역 간 정주여건 격차가 존재한다.** 정주여건 종합지수 산출 결과, 광역시* 평균은 114.4로 기준치(100)를 상회한 반면 도지역**은 96.2로 기준치를 하회하였다.

*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였다. ** 제주를 제외한 7개도가 기준치를 하회하였다.

1.1. **보건·복지 부문의 격차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안전, 생활환경, 문화·여가 등의 순으로 광역시와 도지역 간 정주여건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임금·일자리에 대한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광역시[1]와 도지역[2] 정주여건 비교



주 : 1)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의 평균
2)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의 평균

(충북도 내 시·군별 비교)

4. **충북 내 시·군별 정주여건 종합지수는 청주가 108.8로 11개 시·군 중 가장 양호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청주는 교육, 생활환경, 보건·복지 등 3개 부문의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여가는 2번째 순이었다. 나머지 부문은 대체로 중간 정도의 순위로 나타났다.

4.1. **다음으로 진천이 2번째, 충주가 3번째로 나타났다.** 진천은 주택·교통 부문이 11개 시·군 중 가장 높았으며 여타 부문의 순위도 대체로 상위권이었다. 충주는 문화·여가(11개 시·군 중 1번째), 생활환경(2번째), 보건·복지(2번째) 등의 순위가 높았다.

4.2. 11개 시·군 중 4번째인 증평은 안전(1번째), 주택·교통(2번째), 문화·여가(3번째), 생활환경(3번째) 등이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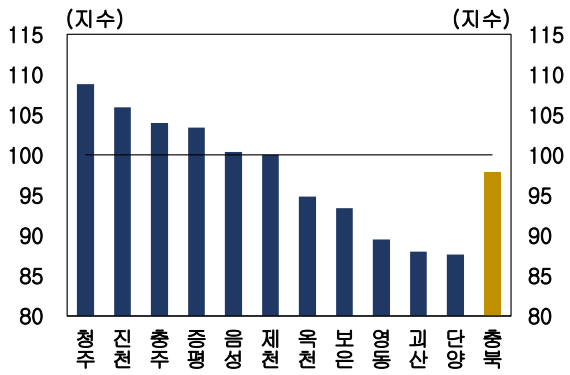
5. **반면 단양, 괴산, 영동은 정주여건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단양은 문화·여가, 보건·복지 부문이, 괴산은 교육, 생활환경, 임금·일자리가 11개 시·군 중 가장 낮았다. 영동은 대부분의 부문에서 9~10위의 순위를 보였다.

5.1. 11개 시·군 중 8번째인 보은은 부문별 지수 대부분이 하위권이었으나 임금·일자리는 11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 임금·일자리 부문의 세부 평가지표 중 기식기반제조업 입지계수가 11개 시·군 중 1번째로, 종사자 수 증가율(최근 3년)이 2번째로 높았다. 산업연구원은 지식기반 제조업을 전자정보, 반도체, 정밀화학 등 9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입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보은의 경우 정밀화학 입지계수가 28.53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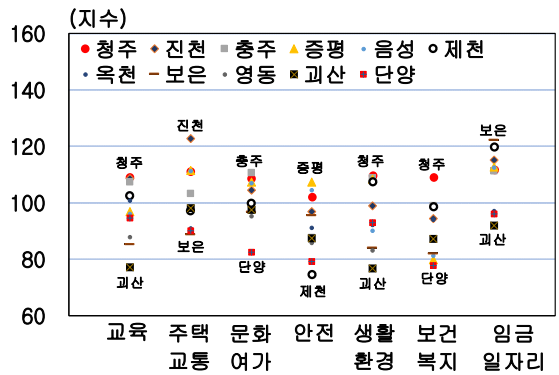
청주, 진천, 충주, 증평 등의 순으로 나타남

충북도내 시·군별 정주여건 종합지수



청주, 진천은 대부분 부문에서 상위권을 보임

충북도 내 부문별/시·군별 지수



Ⅱ. 정주여건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

6. **정주여건 종합지수가 높을수록 인구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β = 0.31).** 인구 증가율(2023년 중)을 종속변수, 시·군·구별 정주여건 종합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OLS)*하였다.

*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_i = \alpha + \beta_j X_{i,j} + \epsilon_i$. 여기서 y_i는 162개 시·군·구별(i) 인구 증가율, $X_{i,j}$는 시·군·구별 종합지수 및 7개 부문별(j) 지수를 나타낸다.

7. **부문별로는 주거·교통, 안전, 임금·일자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인구 증가율에 대한 각 부문별 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교통(β_2 = 0.64), 안전(β_4 = 0.29), 임금·일자리(β_7 = 0.19) 부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구증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1. 교육, 문화·여가, 생활환경, 보건·복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주여건은 인구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침

인구 증가율에 대한 정주여건지수 회귀분석 결과

종합지수 (β)	교육 (β_1)	주택·교통 (β_2)	문화·여가 (β_3)	안전 (β_4)	생활환경 (β_5)	보건·복지 (β_6)	임금·일자리 (β_7)
0.31**	-0.04	**0.64*****	-0.18	**0.29*****	-0.42	-0.01	**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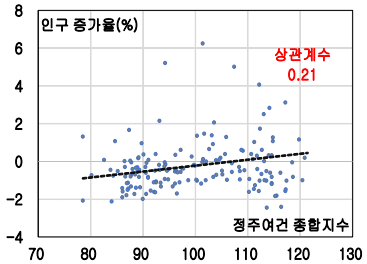
주 :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R^2=0.11

8. **한편 상관관계 분석을 보면 인구 증가지역에서만 정주여건과 인구증가율 간의 상관성(상관계수 +0.27)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종합지수와 인구 증가율 간의 상관성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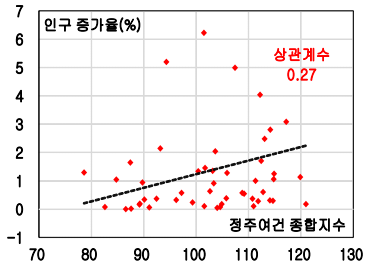
인구 증가지역에서 정주여건 종합지수와 인구 증가율 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주여건 종합지수와 인구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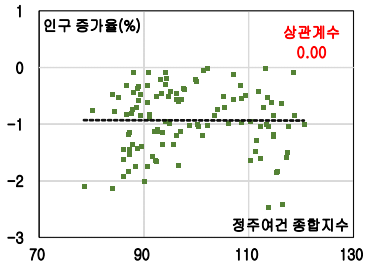
<전체>



<인구 증가지역>



<인구 감소지역>



Ⅲ. 시사점

9. **본고의 분석 결과는 인구 증가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주거·교통, 안전, 임금·일자리 부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9.1. 충북은 주거·교통, 임금·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할 때 동 부문이 지역 내 인구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충북은 안전 부문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안전 부문은 인구 증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충북은 안전 부문*의 정주여건지수가 8개도 중 3번째로 낮았다.

* 이는 충북 청주의 경우에도 8개도 대표 도시 중 3번째로 낮았다.

10.1. **소방서, 경찰서, 옥외대피소 등의 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역민이 안정적인 일상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밀착형 범죄예방 환경(AI CCTV 및 자동신고 시스템 등) 조성, 고령자·아동 대상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역민의 체감 안전도를 강화한다.

11.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정주여건의 주요 지표로 평가되는 보건·복지 부문의 개선도 필요하다.** 충북의 보건·복지 부문 지수는 8개도 중 2번째로 낮았다. 특히 청주를 제외한 여타 시·군의 지수는 전국 평균(100)을 하회하였다.

11.1. **비청주권역의 응급의료시설 및 병원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권역별 응급의료 거점 강화, 응급 환자 이송체계 개선, 중소병원 기능 고도화, 원격·이동 의료 확충 등을 통해 생활권 단위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12. **충북도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군별 정주여건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긴요하다.** 특히 종합지수가 낮은 단양, 괴산, 영동의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 청주와 단양의 정주여건 종합지수 차이는 21.2p에 달한다.

12.1. **지역별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분석에서는 단양은 보건·복지 부문이, 괴산과 영동은 생활환경 부문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이현재(2005), "주성분 분석에 의한 IMD 및 WEF 국가경쟁력지수 평가",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2호

성주인 등(2025),「2024 지역발전지수」, KREI 농정포커스 제22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휴석(2024), "청년층 이동 동인 분석과 지방소멸 위험 대비의 함의", 국토지리학회지 제58권 제1호, 국토지리학회 pp.121-134

채성주 등(2024), "청주시 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 청주 이슈BRIEF vol.8

최지우(2023), "싱가포르 안전 및 보안시장의 변화: 인공지능 기반 CCTV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최영준(2016), "기업 취약성 지수 개발 및 기업 부실화와의 연관성:, BOK 경제연구 제2016-20

최효민(2024), "글로벌 스마트시티 인덱스 동향:IMD, Smart City Index 2024", 이슈브리프 24-03, 서울디지털재단

국토교통부(2024),「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연구보고서」

국토교통부(2021),「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 선정 발표」보도자료, 각년도

(사)한국지역경영원(2025),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공동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지방시대위원회(2025),「2025년 균형발전지표 동향분석 보고서」

Paul, A. and Sen, J.(2020), A critical review of liveability approaches and their dimension, Geoforum vol.117, pp.90-92

Ruth, M., and Franklin, R. S.(2014), Livability for all? Conceptual limits and practical implications. Applied Geography, vol. 49, pp.18–23

Valcárcel-Aguiar, B., Murias, P., and Vecino-Aguirre, A.(2022), Liveability Versus Sustainability in Spanish Cities: First Evidences Using Synthetic Indicator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vol.17, pp1935-1960

EIU(2025), Ranking the world's most liveable cities, The Global Liveability Index 2025